

대학사회 만연한 족보 매매, 정보의 불균형 없애야

강래완 기자 krw97@khu.ac.kr

오진영 기자 clara0504@khu.ac.kr

시험기간이 되면 족보를 구하거나 판매하는 수많은 글이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강의의 필기와 기출 문제 등을 담은 자료집을 뜻하는 족보는 대학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족보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족보는 교수가 직접 만들거나 해당 수업을 먼저 수강한 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 시험의 출제 경향이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한다. 족보는 통상 선후배간 친목에 의해서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거래로 전해진다.

매년 학생 사이에서 족보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올해 3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대학 SNS ‘에브리타임’에는 족보를 사고판다는 게시물이 비밀 게시판 461개와 그 외 국제캠 게시판, 서울캠 게시판, 새내기 게시판, 졸업생 게시판 등을 포함하여 총 638개 업로드 됐다.

대학 내엔 족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지난 4월 4일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는 족보문제의 폐단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다는 말에 공감하던 우리들이 족보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족보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글에는 족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달렸다. 댓글에는 “선배가 후배에게 기출문제를 알려주는 점이 문제가 되느냐”는 의견과 “유출 금지된 문제를 편법으로 몰래 유출하는 족보가 대다수인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 달렸다.

족보의 유통형태

형평성 문제 야기

일각에는 족보가 교수의 시험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김유빈(문화관광콘텐츠학 2017) 씨는 “족보는 방대한 양의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울 뿐더러, 잠시 놓친 수업을 보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족보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학생 모두에게 공개되지 않는 특



성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맥, 돈 등 자본의 차이가 정보의 불균형으로, 성적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도 족보 거래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지난 학기 한 시민교육 팀은 대학 내 족보문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대자보를 게시한 바 있다.

대자보는 ‘족보의 유통형태가 형평성의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며 ‘대부분의 족보 유통이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점이 평가하는 것은 ‘해당 과목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해했나’인 점을 강조하며 학점이 인맥에 좌우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유진(경영학 2017) 씨는 “전과생이나 과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족보를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며 “전과생이다 보니 족보가 있는 수업은 시작점부터 불공정하다고 생각해 피하게 되어 들을 수업에 한계가 생긴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학교 차원에서 각 수업의 기출문제를 공개하거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족보를 공유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대학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 자료로 기출문제를 직접 공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스누족보’ 사이트는 누구나 수업 관련 자료를 올리고 받을 수 있게 해 기출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최근 우리학교에서도 누구나 족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에브리타임에는 한 이용자가 공정한 기회를 위한 기출 문제 공유 페이지 ‘KHU 족보’를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개인이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해 ‘족보 블로그’를 개설, 족보매매 없이 모두가 기출문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족보를 사고파는 행위

저작권법상 위법 소지 있어

한동(경영학) 교수는 “커뮤니티 상에서 자신의 수업 족보가 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돈 있는 사람은 족보를 사서 좋은 점수를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정보를 못 얻어 나쁜 점수를 얻는 것은 문제지만 모두가 정보를 공유해서 공부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의 수업 내용과 출제 문제를 담은 내용이 모두 저작권법에 따라 2차적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족보 매매는 법적인 문제도 안고 있다.

저작권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 또한 제136조 1항에 따라 저작권 재산권 혹은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교수가 만든 시험지뿐만 아니라 교수의 수업은 1차적 저작물로 취급되며, 이 1차적 저작물을 가공한 수업 중 녹취나 족보는 모두 2차적 저작물로 취급된다.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사적인 목적을 위해 복제하거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양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여러 부 복사하여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따라서 시험기간만 되면 SNS에 쉴 새 없이 올라오는 게시물을 통해 강의 필기와 기출 문제 등을 담은 족보를 사고파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정(법학) 교수는 “교수의 수업 내용이나 강의 자료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SNS에 게시하거나 불법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저작권 배포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학생지원처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강의의 대본을 판매한 학생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와 같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시험지 유출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족보를 구매했다. A씨는 “해당 시험지에 유출 금지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봤지만, 족보를 보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족보를 구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족보를 구매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만큼 족보를 구매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 또한 족보를 구매하게 된다. 결국 이런 현상이 대학의 ‘족보문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족보문화 개선 위해

학생·교수 노력 필요

불공평한 족보문화가 없어지기 위해선 학생들의 인식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교수는 족보 매매에 대한 학생들의 저작권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 “우리가 대학에서 저작권 같은 것들을 필수적으로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족보가 통용되도록 매년 똑같은 시험을 내는 교수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해수(무역학 2015) 씨는 “시험에 매년 문제가 반복 출제된다면 학생들은 결국 족보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며 “만약 매년 시험이 다른 방향으로 출제된다면 학생들의 무조건적인 족보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 또한 “과거와 같은 문항을 계속 출제하는 것은 교수 개인의 재량, 교육하는 방법”이라며 “학생들이 족보만 추구하는 풍토를 막기 위해선 교수가 다른 방향으로 출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지원처는 “교수에게 시험의 형태나 내용의 변동을 권하지만,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매년 바뀌 달라 요청하기에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험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광희(정치외교학 2018) 씨는 “시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족보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며 “시험 뿐만 아니라 리포트나 개인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족보 문제의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 제9회 창의적 아이디어 및 디자인 경진대회

2019년 대학창의발명대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재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8일 지식창업교육센터장

| 대회 개요 |

본 경진대회에서는 다음의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가치 그리고 보고서, 발표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우수한 팀을 선정하여 포상하여 격려

- 창의적이고 사업화의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함
- 창의적 아이디어 부문은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
- 모든 아이디어는 선행기술 조사를 필수로 하고, 아이디어를 창업/사업화하기 위한 내용 제시

※ 최소 2인 이상 최대 4인이하의 인원이 팀을 구성하여 진행

※ 아이디어의 범위는 유형의 제품 혹은 무형의 방법 및 아이디어가 모두 가능(공학, 사회/경제, 자연 과학, 예술, 디자인 등). 단, 사회적인 통념상 바람직한 것이 아야함

| 대회 목적 |

-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의 창의성을 증진하고 산업 친화적 관점을 갖도록 장려
- 팀을 구성,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표현 능력 배양하고 팀워크 능력 향상

| 참가대상 |

경희대학교(서울 및 국제캠퍼스) 재학생 및 휴학생

| 세부일정 |

일정	내용	세부사항
5월 15일(수)	서류접수 마감	E-mail 접수
5월 20일(월)	서류접수 통과자 발표	개별 E-mail 통보
5월 27일(월)	본선발표	PPT, 구두발표
5월 30일(목)	최종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고

| 심사방법 |

아이디어에 대해 선행기술 조사와 아이디어 창의성 및 실현 가능성 검토

| 시상내역 |

-대 상 : 1팀(50만 원) - 최우수상 : 1팀(40만 원) - 우 수 상 : 2팀(30만 원) - 장 려 상 : 2팀(20만 원)

| 접수방법 |

- 2인 이상 4인 이하의 팀을 구성하여 창의적 아이디어 구체적으로 제시
- 지도교수선정 : 모든 참가자는 반드시 지도교수(교수, 강사)를 선정
- 접수 마감 : 2019년 5월 15일(수) 24시
- 접수 서류 : 참가신청서, 요약서, 상세계획서
- 서류 양식 : 한글파일(*.hwp) (신청서 양식은 본 센터 홈페이지 http://ipeec.khu.ac.kr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처 : ipeec@khu.ac.kr